

애청자 여러분의 한 주일이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믿음에 화합하여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22회

## 22. 말세와 예수 재림의 징조(9.25.10. 22회)

2010년 9월 25일(안식일 아침)

[마24:1~3]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序; 지난 시간에 성경에 예언된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언은 한 점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셔서 그것이 역사에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사람들에게 과학적 실험을 허용하신 것이 예언과 그 성취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지도를 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있어야 할 역사적 시점에 믿음의 위치도 알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자랑했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깜짝 놀랄 반응을 하신 사실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물었고,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말세와 예수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말씀과 역사적 성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 1.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흔히 헤롯의 성전이라고 하지요. 맨 먼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것이 바벨론 군대에 파괴된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주도로 지은 제 2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제 2성전을 솔로몬의 성전 못지않게 개축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은 엄청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동쪽을 향해 있는 성전 전면 벽은 순금으로 입혀놓았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돋으면 햇빛에 반사되는 반사광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사람이 맨눈으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성전을 자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눅21:5) 라고 기록했습니다. 미석은 아름다운 돌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마24: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징조에 대하여 말씀해주십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보면 제자들은 세상의 끝과 예수님의 재림이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세상의 끝에”라고 했을 때 쓴 말이 “순텔레이아”인데 이것은 끝 기간을 뜻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끝은 아니라”고 대답하시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제자들의 질문에 “세상 끝은 시작과 끝이 있는 기간”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마24:36)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징조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징조를 볼 때 예수께서 아주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24:32,33) (눅 21:29~31)

먼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과연 일어났는가를 살피는 것이 순서이겠지요.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면 그것은 척도로 하여 다른 예언들의 성취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일이 이루어진 후에 믿게 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과 관련된 징조들도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대에는 이미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성전은 기원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마24:15,16)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눅21:20)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과 같습니다. 마태는 재림 전에 있을 징조와 예루살렘 멸망 징조를 겹쳐서 말씀하셨고 누가 복음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뇌리에 새겼습니다. 과연 기원 66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사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했으니 도망을 가야하겠는데 어떻게 포위망을 뚫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포위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지동과 함께 땅이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긴가민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모이던 자리에 나와 봤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의논하고 모인 것 같았습니다. 서로 까닭을 물으니까 어디선가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모이는 곳에 나와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가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정 20명이 밀어야 열리는 성문은 평소에 쇠로 빗장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보초들이 서 있고, 밖에는 로마군이 포위하고 있는데 무슨 까닭일까 하고 슬금슬금 그들이 있는 곳에서 비교적 가까운 동쪽 성문 쪽으로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육중한 성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하여 집으로 달려갈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이 열린 것을 보자 언제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모이는 곳에 나온 그대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벨라 골짜기에 숨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18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지 말지어다.”(마24:16~18) 빈 몸으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로마군 사령관은 세스티어스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3년 반을 포위하고 있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의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된 그때에 유대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이 포위를 풀로 철수했습니다. 유대 군인들은 철수하는 로마군들을 뒤따라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으로 피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마침 절기 축제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거의 백만이나 성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유의한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로마군이 물러간 것은 로마에 있었던 정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네로가 죽임을 당하고 갈바 장군이 황제가 되었으나 곧 자살하게 되고 오토, 비텔리우스, 이렇게 한 해 동안 견잡을 수 없이 정변으로 황제가 바뀔 때 유대 지방 반란 토벌을 나와 있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회군하여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로마군이 철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를 다 보시고 그런 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때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보신 것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자 아마도 황권이 안정되자 유대 정복을 종결지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아들 티투스를 사령관으로 하여 유대 정벌을 명하였으며 티투스는 출정하였고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기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티투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되었을 때에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그 도성은 유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다. 잘 보존하기만 하였더라면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었을 저장된 식량은 불목한 당과 간의 질투와 복수로 이미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온갖 심한 기아에 빠지게 되었다. 밀 한 되의 값이 한 달란트나 되었다. 사람들은 기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들의 가죽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씹기까지 하였다. 많은 백성들은 들에서 자라는 식물을 뜯어오고자 밤중에 몰래 성벽을 넘어갔다. 그러나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설혹 안전하게 돌아온 사람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두어 온 것들을 도둑맞거나 빼앗기기 일쑤였다. 심지어 궁핍에 빠진 사람들이 감추어 두었을지도 모르는 조금밖에 안 되는 최후의 양식을 빼앗기 위하여 세력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다. 그들 중에는 식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위하여 저장해 두려는 생각에서 만행을 행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다. ...

티투스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비참한 광경을 빨리 끝내고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을 막아 보고자 하였다. 그는 골짜기에 쌓여 있는 시체들을 보고 공포로 충만하여졌다. 그는 무엇에 도취된 사람처럼 감람산 위에서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돌 하나도 다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그 요새를 점령하는 작전을 벌이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이 거룩한 곳을 부득이 피로써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들이 성에서 나와서 어떤 다른 곳에서 싸웠다면 로마군은 아무도 그 성전의 신성성을 깨뜨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요세푸스(Josephus)는 매우 열렬한 웅변으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도성과 그들의 예배하는 성전을 건져내기 위하여 항복하라고 간원하였다. 그러나 그 같은 간청에 대하여 그들은 심한 저주로 응수할 뿐이었다. 최후의 조정자로 그들에게 파견되어 간원

하는 사람에게 그들은 도리어 창들을 던졌다. … 티투스가 성전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울인 온갖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티투스보다 더욱 위대하신 분께서 일찍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첩놓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의 맹목적인 고집과 포위된 성 안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범죄들은 로마군의 공포와 분노를 더욱 자극시켰다. 그리하여 마침내 티투스는 강습하여 성전을 점령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성전을 파멸에서 건져내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무시되었다. 밤이 되어 그는 자기의 천막으로 돌아왔는데 그 때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뛰어나와서 밖에 있는 군사들을 갑자기 공격하였다. 한창 서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한 군인이 불붙인 횃불을 문 안으로 던짐으로써 성전 주위의 행랑이 갑자기 불꽃에 휩싸였다. 티투스는 장군들과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곳으로 달려가서 불을 끄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격분한 군인들은 성전에 붙어 있는 방들에 불을 던지고 거기에 피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였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층층대는 피로 물들었다. 실로 수백만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가 붓”(Ichabod - 영광이 떠났다) 이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티투스는 군사들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장교(將校)들과 함께 몸소 성전 내부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그 성전의 장려(壯麗)함과 화려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성소까지는 불길이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구해내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뛰어나오면서, 불길을 막으라고 군사들을 독려했다. 백부장 리베랄리스(Liberalis)는 그의 참모 장교들과 함께 그의 명령에 복종케 하려고 힘써 보았다. 그러나 로마 황제에 대한 군사들의 존경심조차도 유대인들에 대한 심한 분노, 전투의 격렬한 흥분, 그리고 탐욕스러운 약탈에의 갈망을 막을 수 없었다. 군인들은 자기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타오르는 화염에 반사되어 눈이 부시도록 빛났다. 그들은 성소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보화가 감춰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드디어 한 사병이 아무도 모르게 성소의 문의 돌쩌귀들 사이로 불붙은 횃불을 던져 놓자, 온 건물은 삼시간에 화염에 싸여 버렸다. 자욱한 연기와 불길 때문에 장교(將校)들과 군사들은 부득이 물러나오게 되었고, 마침내 그 훌륭한 건물은 파멸당하고 말았다.”(쟁투34)

로마 군인들은 성전이 고열로 불타면서 벽에 입힌 금이 쌓은 돌들 사이로 녹아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캐내려고 돌들을 헤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림 전에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 2. 징조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재림 전에 있을 세상의 징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금이 어느 지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에게 가르쳐주신 이상으로 예언된 발가락 시대이고, 한 때 두 때 반 때로 예언된 그 기산이 지난 끝 시대입니다. 그 끝 시대 중에도 거의 끝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마 24:5, 11, 23, 24)

AD 30~70년 사이에 많이 일어났으며 AD 132년의 발 코크바(Bar Cochba)는 하나의 거짓 그리스도

였고, 그가 유대 독립을 부르짖으며 로마를 반역한 반란은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내다보신 주께서는 환난의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지장 받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마 24:20).

오늘날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세계 처처에 많지 않습니다.

②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습니다.(마 24:6)

③ 처처에 기근이 있습니다.(마 24:7)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⅓가 영양실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이기 보다는 현실에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④ 처처에 지진이 있습니다.(마 24:7)

현재 우리는 이 예언이 얼마나 실감 있게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지 오히려 전율을 느낄 지경이지요.

해마다 지진이 증가하고 그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세기에 파괴적인 지진이 15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세기에는 253회, 18세기에는 640회, 19세기에는 2116회, 20세기부터는 매년 일만 여회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중에 파괴적인 지진만도 매년 몇 건씩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현 시대에 일어난 연쇄 지진 등은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⑤ 처처에 은역이 있습니다.(눅 21:11)

세월 따라 새로운 병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달되는 과학의 기술이 일어나는 병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여 전염이 빨리되어 병은 처처에 많아지기만 합니다. 사단은 치명적인 병균을 공중에 뿌립니다(쟁투 589). 조류 독감은 새로운 위협이었지요. 예전에는 새나 짐승의 병이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돼지 독감의 공포도 겪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음식물에 특별히 조심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⑥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마 24:9)

공산주의의 핍박과 그보다 못지않게 신학사상의 변질로 진리가 핍박을 받으며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복음주의와 민족주의의 마찰로 인한 핍박도 현대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⑦ 죄가 성하여집니다.(마 24:10~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고 그 결과로 도덕적 부패가 세상에 넘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까지라도 죄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⑧ 해, 달, 별의 징조가 있습니다.(마 24:29)

1780년 5월 19일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 밤에 달이 핏빛이 되어 빛을 내지 아니하였고, 1833년 11월 13일에 별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 권능들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심해지며, 별 소나기도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위에 열거한 사건들이 재림의 징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은 몇 가지 조건으로 그 성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의 적절성과 사건의 순서와 지리적 요건입니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지진이 나고 별 소나기가 쏟아지고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아도 이 징조 예언의 성취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대로 이것은 ‘그날 환난 후’라는 시기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 환난은 한 때 두 때 반 때의 환난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순서는 예언된 대로 지진과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과 별들이 떨어지는

순서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예언은 계시록 6장에도 예언되었습니다.(12, 13) 그 순서는 동일합니다. 요엘의 예언 순서도 동일합니다.(요 2:31) 지리적 위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큰 환난 후는 1700년대 후반에 끝이 났습니다. 그때 세상의 여러 나라들은 하늘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재림 징조로 깨닫기 보다는 나라에 어떤 길흉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리적 지역에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사는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 지리적 적절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스본 지진과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은 것과 별들이 떨어지는 천연계의 징조는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⑨ 두려움이 세상을 뒤덮습니다.(눅 21:25, 26)

오늘날 온 세상은 평화를 부르짖으나 평화가 없습니다. 전전공공하는 세대입니다.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요 3:10)고 하는 세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 기절할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미국 국제 무역회관의 폭파 후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세계 처처에 테러의 공포가 휩쓸고 있는 것은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실감하게 합니다.

⑩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마 24:14)

예수님의 재림, 곧 이 지구의 종말은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야 이릅니다.

⑪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마24:37-39]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일상생활에 몰두함으로 세상에 임할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의 전반적인 상태로 포함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노아 때로 가 볼 필요가 있지요.

[창6:11,12]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패괴(悖壞)와 강포(強暴)가 노아 때의 사회적 특징이었습니다. 패괴는 어그러지고 무너졌다는 뜻이고 강포는 폭력을 뜻합니다. 패괴라고 번역한 원어는 “샤하트(tj'v;)”인데, “떨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는 뜻입니다. 도덕적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주님의 표현 안에는 그렇게 하는 상태가 샤하트 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 자체가 완전히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강포는 “하마스(sm;j)”인데,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을 뜻하는 말입니다. 폭력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요즘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애청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⑫ 룯의 때와 같습니다.

[눅17:28-30] 또 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 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룯의 때의 특징은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는 일상생활의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징조로서 식도락이나, 폭식폭음이 일상화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고팔고는 쇼핑에 몰두하는 삶의 모습을 포함합니다. 심고 집을 짓는 것은 인구 증가와 관계있는 표

현입니다.

그러나 역시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19:4,5]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사람들은 성도착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는 말은 “야다([d'y:])”인데 창세기 4장1절에는 동침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소돔 사람들 중에 다수가 동성애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재림 전에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은 참으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사회현상입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 ⑬ 도덕적 인간관계의 징조

[딤후3:1-5]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 사람들은 1자기를 사랑하며 2돈을 사랑하며 3자궁하며 4교만하며 5훼방하며 6부모를 거역하며 7감사치 아니하며 8거룩하지 아니하며 3 9무정하며 10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11참소하며 12절제하지 못하며 13사나우며 14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4 15배반하여 팔며 16조급하며 17자고하며 18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19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날 세상 사람들의 윤리적 도덕적 상태를 잘 나타냅니다.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있을 현상입니다.

### ⑭ 노동계의 부조리

[약5:1-5]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4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샅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샅이 소리 지른다는 말은 노동쟁의를 뜻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지금 노동현장의 상태가 아닙니까다.

### ⑮ 종교계의 징조

이것은 이미 작은 뿔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 말씀 드릴 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다 종교적 징조입니다. 신자 개인의 상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눅18: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신자 개인의 믿음이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을 떠나고 정서와 감각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흥 현상은 복음을 좇아 진정으로 거듭난 경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인기 팝송 가수들의 공연에 참가하여 열광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경험으로 부흥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연계의 징조에 대하여 유의하는 것은 할 만한 일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성취된 징조입니다. 남은 것은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리고 섬들이 제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하실 그때 있을 현상입니다.

[계6:12-14]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런 징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상태입니다. 주님을 언제든지 맞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격이 바로 재림을 맞을 인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3.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후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요일2:28]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애청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바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영광중에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 영광중에 오시는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잠시라도 주를 떠나지 않고 주 안에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인애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쳐주신 대로 지금은 참으로 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으리라고 한 징조들이 대부분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함으로 기절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깊이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주옵소서. 부도덕과 강포가 극심한 시대에 오직 주님이 세상에 어떠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영광중에 주님을 맞이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